더 행복한 대전성모병원을 만드는 당신은 **친절한 성모씨**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6년에도 더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가는 친절한 성모씨가 많이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과 이상봉 교수

신경과 이상봉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교수님은 마치 환자를 부모님 대하듯 하시면서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달라진 점은 없는지요?" 하며 환자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며 진료해주십니다. 너무 고마워서 칭찬의 글을 올립니다.

훌륭하신 백의의 천사입니다.

72병동 조별림 간호사

어깨 수술 후 조별림 간호사님의 지극정성의 간병에 감사드립니다. 주사 시 혈관이 안보여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상태로 무릎을 꿇고 늙은 팔뚝을 두드리면서 혈관을 찾는 모습이 말 그대로 천사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백의의 천사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보팀

극진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중환자실 우선아 간호사

얼마 전 가족 중에 한 분이 너무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환자를 편안하고 극진하게 잘 살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까지 살뜰히 살펴주셨어요. 온화하신 표정으로 환자를 살펴주셨고 보호자들에게도 걱정 안 되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있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만 있다면 대전성모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성모병원을 빛내주시는 선생님들!

진단검사의학팀

딸아이가 몇 개월째 대전성모병원에서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진료 시 담당 교수님께서 엑스레이 촬영 및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하셔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채혈 과정에서 딸아이가 예전 기억 때문에 무조건 채혈을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한 시간 반 넘게 채혈실의 채혈 의자와 대기실 의자를 반복해서 오가며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싫다는 내색 없이 아이를 어르고 달래느라 진단검사의학팀 모두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채혈실 선생님들의 도움 덕에 날뛰는 딸아이의 채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함이 기억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시기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나날이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